



동성엔지니어링, 정읍시민장학재단에 500만원 기탁

정읍시민장학재단은 6일 종합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기업인 (주)동성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상규)으로부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주)동성엔지니어링은 경북 경산시에 본사를, 서울 송파구에 지사를 두고 있는 건설한 중견기업이다. 도로, 구조, 지반공학, 환경사업, 교통 계획 등 사회기반시설 전반에 걸친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련 업계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상규 대표이사를 대신해 김광수 사장이 참석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히 (주)동성엔지니어링은 이번 정읍 기탁 외에도 그동안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울릉도 장학금 기탁, 서울 송파구 장제인의 날 축제 후원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는 정읍시의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며 나눔의 영역을 넓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동충동 청담마녀 미용실, 나눔캠페인 동참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청담마녀 미용실(대표 노준범)에서 '사랑의 앞머리' 기부를 통해 희망 2026 나눔캠페인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며 12만 원의 성금과 함께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청담마녀 미용실이 앞머리 커트 비용 1,000원을 1년간 적립해 마련한 성금으로, 일상적인 커트 한번, 한 번을 기부로 연결한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대표 노준범 씨는 "앞머리 커트 비용을 모아 기부로 이어온 생활 속 나눔이 의미 있는 결실로 마무리되어 뜻깊다며, "이번 나눔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차남 동충동장은 "이번 기부는 지역 소상공인이 앞장서 실천한 따뜻한 나눔 사례라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시민 대상 화재 안전수칙 홍보 강화

남원소방서(서장 남철희)는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로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목보일러는 나무 등 고체연료를 사용해 연소 과정에서 불티가 발생할 경우가 있고, 온도 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및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주택 내 소화기 비치 △연통 및 보일러 주변 불연재 사용 △연료 과다 투입 자제 △사용 후 잔불 완전 소화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절대적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새마을운동중앙회 최형재 신임 사무총장 취임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만들어가겠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56차 이사회에서 최형재(62) 씨를 제26대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최형재 사무총장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주 완산고, 전북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자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비롯해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전북대학교 특임교수, 전주 아름다운가게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주를 지역위원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최 사무총장은 임명장을 받은 뒤 “전국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청년 세대 확산을 위한 AI 새마을운동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이번 인선을 통해 환경·기후 위기 대응과 청년 참여 확대 등 미래지향적 새마을운동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이번 인선을 통해 환경·기후 위기 대응과 청년 참여 확대 등 미래지향적 새마을운동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2026년 본격적 새해업무 돌입

‘2026년 병오년 시무식’ 개최… 나경균 사장, “속도감 있는 책임개발· 절대 안전이 중요”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6일 오전 공사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병오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에 돌입했다.

나 사장은 지난해 ‘수변도시 최초분양 완판’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는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6년에는 수변도시를 넘어 제2산단, 관광·레저용지의 신속한 매립과 함께 기업·학교·복합리조트 유치 등 기반시설 구축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가적 과업인 RE100 완수를 위해 육상태양광(30MW) 선도사업과 더불어 1.2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빠르게 진척시켜 국가적 에너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나 사장은 경영 철학으로 ‘알파(α) 경영’과 ‘안전’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새만금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안전’”이라며, “안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한 안전의식과 청렴한 윤리의식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들에게 △소통 △화합 △책임감의 세



가지 자세를 당부하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넓혀가는 사명감을 가진 조직인 만큼,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우리의 일’이라는 책임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공사는 이번 시무식을 기점으로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에 따른 공사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대 이상을 실현하는 ‘책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델몬트음료·진안물류 전승현 대표, 장학금 기부

(주)델몬트음료·(주)진안물류 대표 전승현 씨가 6일 진안군 신년인사회에 참석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재경 진안군민회 상임고문도 맡고 있는 전승현 대표는 이 전에도 고향사랑기부금과 진안사랑장학금, 행사 후원금 등을 기부하며 고향에 대한 큰 애정을 보여줘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전 대표는 “고향 후배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 “진안의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춘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보내주시 소중한 정성은 우리 학생들이 진안을 빛낼 재목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투명하고 내실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읍경찰서, 교통사망사고 예방 위한 교통 특별근무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교통사망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매일 교통 특별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근무는 최근 교통사망사고 증가 및 도로 안전 위협요인은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권역별 주·야간을 아우르는 통시 단속과 2~4회기의 스팟 단속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음주단속 △이륜·PM 계도 및 단속 △교통법규위반 등 주요 원인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교통 혼잡구간과 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간대별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불시 스팟단속을 매일 2~4회까지 운영하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만경읍 노인일자리·발대식 및 안전교육 실시

김제시 만경읍 행정복지센터는 6일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필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 참여 어르신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활동 중 교통안전 수칙, △동절기·환절기 건강관리, △낙상 사고 예방 요령,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 등으로,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